

1. 북한인권법 가로막는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2. 푸틴 측근' 발레리나의 서울 공연을 반대한다!

일시 : 2024. 3. 5(화) 11:30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옆 기자회견장(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1.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8년 전 3월 3일 북한동포를 해방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11년간 표류하던 북한인권법안은 2016. 3. 2. 재적 242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고, 다음날 바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이사를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출범조차 못하여 법은 8년째 사문화된 상태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에 의존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국회의 뜻을 존중하여 정상적인 법 시행만 촉구하여 왔다.

그동안 북한인권은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은 남한과의 통일 및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대남교류기구까지 전면 폐지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단이사 추천은커녕 2019년 탈북어민 강제복송, 2020년 서해공무원 월북조작과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올해는 4월 총선에 종북 숙주가 되어 '경기동부연합'의 국회 입성을 돕는 등 북한인권 악화를 가중키시키고 있다.

북한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헌법적 가치이다. 북한인권법은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주민을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 최소한의 노력마저 가로막는 정치세력을 국민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러시아 예술가 공연 취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를 대표하는 스타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45)가 내달 17~21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을 앞두고 있다. 우크라이나 태생의 볼쇼이발레단 수석인 자하로바는 러시아 발레를 상징하는 무용수이지만 크림반도 합병에 찬성했고, 푸틴의 문화계 최측근으로 집권당 연방의원까지 지냈다. 지난해 러시아 예술가들의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에도 불참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대부분 러시아 내 일자리를 잃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희생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전쟁을 주도한 푸틴에게 전쟁범죄로 ICC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으며, 특히 그가 민주 인사 '나발니'의 지난 2월 16일 의문사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과 연계된 예술가의 내한 공연은 적절치 않다. 러시아가 대러 제재에 동참한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해 우리 예술가들의 러시아 공연은 대부분 막혀 있는데, 자하로바만 국내에서 공연하는 건 상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2024. 3. 4.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에스더기도운동 등 35개 단체